

인권 자료실		
분류	구분	번호
		87-4 21

<제3회 참여연대 열린법정>

인권 자료실		
분류	구분	번호
		A6

박해받는 내부고발자

- 혜인원 정광용씨 절도죄 사건 -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참여연대 회의실

순서

사회 : 이석범 변호사

여는말

- 박은정 교수 (사범감시센터 소장) -

혜인원 정광용씨 사건개요

- 정태상 변호사 -

혜인원의 상황과 수용시설의 문제

- 혜인원 노동조합 -

“내부의 양심이 보호받는 사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박홍식 교수 (내부고발자지원센터 부소장) -

질의 응답 시간

헤인원 정광용씨 사건 개요

최창수, 김혜경 부부가 79년경 동두천에 있던 장애인 복지시설을 인수하여 그 이름을 헤인원이라 하였고, 헤인원은 신갈로 옮겨졌고 1987년12월경 현 장소로 이전하였습니다.

1993년7월5일 헤인원의 수용아들에 대해 지급하는 식사와 국고횡령등이 SBS 『김승규의 현장취재』에 방영되어 1993.7.16. 당시 헤인원 이사장이던 최창수와 원장이던 김혜경이 물러나고 관선 이사장이 선임되었으나 거의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1993년 8월말 경 이덕균 관선원장이 부임하면서 어느 정도 헤인원이 정상화되었습니다.

1994.1.10. 정광용씨가 헤인원 보육사로 입사하였습니다. 1994.3초순경 정광용 보육사등이 창고를 정리하자고 주장하여 이덕균 관선 원장의 허락으로 창고를 정리하였습니다. 원래 모든 창고 열쇠는 최창수, 김혜경 부부의 조카며느리인 이영수 보육사가 관리하였는데, 이영수 보육사는 창고 정리기간 중에 최창수와 김혜경의 개인 소유 물품들을 가져간다고 원생들을 시켜 물건들을 빼내 간 적이 있었습니다.

창고 정리는 4일간 하였는데 창고 정리 이틀째 정광용씨는 손목시계를 잃어버려 이 시계를 지능이 낮은 원생들이 쓰레기 소각장에 버린 것으로 추측하고 원생들 몇 명을 데리고 쓰레기 소각장으로 갔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시계를 찾던 정광용씨는 그곳에서 친권포기각서와 폐기된 예금통장등을 발견하고 이것이 헤인원의 비리를 밝힐 수 있는 자료들이라고 생각해 그곳에 있던 박스에 담아 자신의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보사부 지침상 헤인원과 같은 장애인 시설은 거의 대부분 국고 보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신지체아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70%이상 수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창수, 김혜경 부부는 보호자가 있는 정신지체아들을 수용하면서 그 보호자들로부터 친권포기각서를 받은 후 그 정신지체아들을 무연고자로 신고하였고, 그 보호자들로부터는 처음 헤인원에 입원시킬 때 수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의 돈을 받아 이를 사적으로 횡령하였고, 또한 매월 일정한 후원금을 받아 이를 헤인원 통장에 입금시키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친권포기각서는 보호자 있는 정신지체아들을 무연고 정신지체아로 둔갑시켰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며, 또한 보호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횡령하였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동들 명의의 예금통장은 경기노조에서 소액의 돈을 입금시키고 만들어 준 것인데 이를 최창수, 김혜경이 보관하다가 그 돈을 빼서 사적으로 유용한 후 폐기시켰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류들은 최창수, 김혜경 부부가 헤인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증거들이 되며 정광용씨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위 서류들을 주어 "함께걸음"이라는 월간지에 제공하여 보도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그후 KBS 제 2 TV 『사랑의 가족』에서도 방영되었고, 일간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최창수와 김혜경 부부는 일단 헤인원을 떠났으면서도 광주군청등에 진정 등을 통해 관선 이사장과 원장을 물러나게 하고는 자신들이 복귀하지 않고 현이사장인 서정희에게 헤인원을 매각하였습니다.

해인원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개인간에 매매될 수 없는 것이나 해인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여 현 서정희 이사장이 최창수, 김혜경에게 수익원을 주고 매수하였고, 1994년8월30일 경 서정희 이사장이 취임하였습니다. 서정희 이사장은 취임 직후 총무 염홍섭씨등 직원들을 해고하려고 하였고, 해인원도 자신이 거금을 주고 인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 투자금을 뽑기 위해 해인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려고 하여 정광용씨등 4명의 보육사가 1994.10.20. 경 노조를 결성하였습니다.

서정희 이사장은 노조가 결성되면 자기 마음대로 해인원을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는지 노조 결성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려고 하였고, 그 방법의 하나로 노조위원장인 정광용씨를 어떤 명목으로든 구속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광용씨를 구속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광용씨가 쓰레기 소각장에서 주운 친권포기 각서등을 해인원 사무실 서류함에서 훔친 것으로 조작하여 고소하였고, 또한 정광용씨가 1994.3. 중순경 당시 서무 이진주에게 부탁하여 복사하였던 이영숙 보육사의 이력서도 사무실 서류함에서 훔쳐 간 것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영숙 보육사의 이력서는 당시 서무 이진주의 진술로 훔쳐 가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돼 검사가 이 부분을 기소하지 못했고, 결국은 친권포기각서와 폐기된 예금통장을 훔쳐 간 것으로만 기소되었습니다.

정광용씨는 1994.12.9. 광주군청 부군수와 면담 중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고, 1995.1.24. 첫 재판이 시작되어 검찰측 증인으로 보육사 한화자, 이영수, 전 인덕학교교장 구자승, 현 이상장 서정희등이 출석하여 증언하였고, 변호인측 증인으로는 염홍섭 전 해인원 총무, 김순희 전 해인원 원장등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한 결과 1995.5.23.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검찰은 원래 정광용씨가 사무실 서류함에서 서류를 훔쳤다고 주장하며 사무실 서류함의 파손된 열쇠 구멍을 사진으로 제출하였으나, 검찰측 증인인 한화자의 말과 맞지 않자 나중에는 2층 서류창고에서 훔쳐 간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측 주장은 사건이 일어난 후 몇 개월이 지난 후에야 그것도 당시 해인원 원장등은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은 것을 나중에 부임한 서정희 이사장이 문제를 삼고 고소한 점, 사무실 서류함 사진을 조작하여 제출한 점, 정광용씨가 쓰레기 소각장에서 친권포기각서등을 주어 왔다고 대부분의 보육사들이 알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근거가 없고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혜인원 노동조합 설립 동기 및 탄압 과정

1. 혜인원의 개요

사회복지법인 혜인원은 정신지체장애인 수용시설로 1979년 동두천에서 000원을 인수하여 신갈로 이전하였고 1987년 12월 광주군 탄벌리로 옮겨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혜인원은 최창수 전 이사장이 당시 무리한 법인 시설 확장으로 빚을 지게 되자 친권포기 각서, 기부금품 수수 등 각종 비리로 물의를 빚게 되어 1993년 관선이사가 파견되었고, 현 서정희 이사장은 1994년 9월 혜인원을 5억 여원에 매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수용원생 100명과 12~15명의 종사자들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은 전액 국가보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혜인원은 1995년 1월 동산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2. 혜인원 운영상 문제점과 노동조합 설립배경

혜인원은 보건복지부 관리지침서에 의해 無연고자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우선으로 수용 보호하게 되어 있고, 그 운영 재정은 전액 국가보조로 취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혜인원에 수용되어 있는 원생들 90% 이상이 연고자가 있고 入院시 음성적으로 친권포기각서를 받고 기부금으로 400~2000만원 까지 받고 원생들을 무연고자로 처리하여 국가보조금을 지급 받는다.

국가보조금도 대부분 경영자들이 유용하고 원생들은 상품화되어 사회에 선전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 기준이하의 영양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단층건물에 2층 3층 으로 증축되어 건물의 안정성도 심히 우려되었다. 그리고 23명의 종사자들이 배정되어야 하나 실제로 12~15명만이 근무하여 나머지 종사자들의 몫까지 감당하고 있으며, 보육사들은 24시간 근무와 40여만원의 임금으로 인해 단기근무로 끝나고 이직율이 높다.

시설장들의 비리 근절과 시설내의 경험 축적, 직원들의 전문화가 이와 같은 이유로 불가능하며 이러한 실정은 원생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있다. 원생들의 복지와의 연결되는 종사자들의 장기근속과 전문화를 위해 임금의 현실화, 근무환경의 개선, 전문교육을 받는 종사자들이 요청되기에 보육사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1994년 10월 20일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다.

3. 노동조합 탄압

1) 혜인원 노동조합은 전문노련을 상급 단체로 하여 1994년 10월 22일 광주군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접수 하였으나 사회계 직원들이 노동조합 설립에 강한 반감을 갖고 혜인원을 떠나라는 등 갖은 탄압을 하였다. 또 직접 직원이 시설에 찾아와 회의를 소집해 노

조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 사표를 수리하라고 이사장에게 지시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였다.

- 2) 또한 광주군청은 글자 몇 개 틀린 것을 빌미로 신고서를 계속 반려하고 우편으로 송부하는등 고의적으로 접수를 지연하였고, 그 사이 해인원측은 무단 외출을 이유로 10월 29일 위원장인 정광용씨를 해고 했다.
- 3) 11월 3일 재접수 하였으나 해고된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고하여 접수를 거부하여 노동부에 항의 전화를 하고 경기도 광주지역 노조대표자들이 즉시 신고증 교부를 요구하자 이 날 설립 신고증을 교부 발송하였다.
- 4) 해인원 노조는 신고증 교부이후 해인원측과 단체교섭을 시도 했으나 해인원측은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상근자 문제나 조합사무실등의 제공 역시 거부하였다.
- 5) 정광용 위원장을 해고 시킨 후 정위원장의 발을 묶기 위해서 1994년 11월 16일 해인원측은 정위원장이 친권포기각서, 기부금 통장등을 사무실 서류함에서 절취했다고 고소하여, 정위원장은 광주부군수와 면담 도중 광주 경안 파출소 경찰들에 의해 연행되었다.
- 6) 또한 계속적인 다른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 요구와 압력을 행사하고 결국 1994년 12월 30일 사무장 박미애 보육사와 정의부장 이진숙 보육사를 남자 아동을 여자 보육사들이 보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고 시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회계감사 홍점숙 보육사를 강제 사직시켰다.

“ 내부의 양심들이 보호받는 사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불의에 대한 거부는 거의 본능적인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결코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주 그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사회에는 탈법, 거짓과 불의, 참을 수 없는 부정확한 요구와 강제가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때 침묵하거나 외면합니다. 스스로 체념하면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세상이 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하면서 못 본 척합니다.

우리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다고 해서 이들을 비난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에 맞섰다가 돌아오는 그 보복과 피해의 공포는 상상을 초월하는 까닭에 어떤 용기 있는 행동을 주문하기도 곤란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간혹 의롭고 용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의의 강요나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고 사회를 정의 위에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이때 보여지는 우리 사회의 태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바깥입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사 '장한 일을 했다'는 동의는 보일지언정 그저 강건너 불구경으로 그치고 맙니다. 더러는 무슨 재미있는 일이나 발생한 것처럼 즐기는 듯 바라봅니다. 마치 꿀볼건으로 나아가 '자기가 무슨 영웅이나 되는 줄 아는 모양이지'라는 시선을 던지는 것도 눈에 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아끼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고통 속에서 낙담합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 재발하거나 습관처럼 묵인되지 않도록 우리의 노력을 조직화하고, 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초부터 이러한 활동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센터가 하는 일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불의를 거부하다가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고통을 덜어 주고 부당한 조직적 보복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 주자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에 비교하면 이것은 아주 미미하고 별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마저 포기하고 외면한다면 그것은 보통 시민으로 이 사회의 편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는 우리가 하는 이러한 일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내부고발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많습니다. 고발과 불신의 사회는 우리도 원치 않습니다. 누구나 부정확한 일을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면, 누구나 그 곳, 그 자리에서 그러한 행위를 거부할 자유를 주고자 하는 본 뜻이 있는 것이지, 고발을 부추기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적어도 불의를 보고 당당히 나서는 사람이 있으면, 이들을 돕는 일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입니다.

누구나 떳떳하게 살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살 권리가 최소한 주어지는 사회를

우리는 희망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사회는 더 복잡화되어 가고 있고, 전문화가 가속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벅차고 무리인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 자신이 납세자를 속이고 국민을 곤경에 빠뜨리는 온갖 부패에 빠져 있음을 봅니다. 따라서 민주적 시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탈법적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들도 국민건강과 생명, 안전에 위험을 주는 행위를 몰래 저지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밖에 시민들은 이것을 알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그것을 찾아 낼 수는 있다고 할지라도, 누가 그랬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누군가 진실을 본 사람이 그 안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이 이것을 그 자리에서 거부하고 항의해 준다면 문제는 아주 간단해 집니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정부를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은 바로 이러한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을 사회에 책임 있는 단위로 만드는 방법도 바로 이것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도 자신들이 하는 돈벌이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상,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희생으로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기업, 소비자를 속이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기업은 더이상 기업이 아닌 범죄집단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든 이러한 활동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 손을 그 현장에서 거부하고 막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의 은인입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이러한 사람들이 조직적 보복으로부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엄중한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빛'인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러한 사실을 귀뜸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감사는 물론이거니와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직하게 살고자 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조직으로부터 혼자서는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보복을 받았고, '잘난 척하는 놈', '저 혼자만 아는 놈'이라는 취급을 받으며 결국 불명예로 추방되고 사회로부터 '영원한 실직'을 선고 받고 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안되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정한 다수가 자신의 힘을 믿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내부의 양심들에게 보복을 가하는 것을 우리가 나서서 막아 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뜻과 힘이 모아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전 동산원 원장 김순희씨 양심선언

“정광용씨 절도혐의 조작되었다”

“혜인원 서정희씨가 5억원에 인수”도 밝혀

6일 본지 기자와 만나 3시간동안 사건전모 털어놔

동산원 노조위원장 정광용씨의 절도사건은 조작된 것임이 밝혀졌다.

동산원 원장이었던 김순희씨가 양심선언을 통해 동산원 정위원장 사건의 전말을 폭로해 파란이 일고 있다.

김씨는 지난 6일 본사 회의실에서 정위원장 절도사건이 노조 와해공작의 일환으로 이사장인 서정희씨의 지시에 의하여 자신이 실시한 조작극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씨는 현 이사장인 서정희씨는 전이사장이었던 최창수씨로부터 당시 혜인원을 5억에 인수했다고 밝히 그동안 매머의혹이 일고 있었던 동산원의 매매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다음의 김순희씨와의 일문일답이다.

Q 정광용씨 절도사건은 어떻게 조작되었나.
A 혜인원 인수 이후 피

원 정리의 1단계 조치로 몇몇 직원들에 대한 사임 압력을 가했다. 특히 정선생(정광용씨 지칭)은 10월경 노동조합을 설립하는등 주도적으로 나서 표적이 됐다.

Q 처음부터 구속시킬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인가.
A 처음에는 해고 정도로 생각했다. 그래서 변재욱군의 관리 소홀, 영양사인 이아무개씨의 사직을 정선생과 연계하여 해고 조치했다.

Q 그렇다면 정위원장의 해고 이유 또한 조작됐다는 것인가.
A 그렇다. 영양사의 사직건은 정선생과 관계가 없었으나 9월 중순경 사소한 말다툼을 한것을 이유로 이씨의 사직서 내용 변경을 아씨에게 요구해 정선생 때문인 것으로 만들었다.

Q 또 변재욱군의 관리 소홀은 변군이 약간의 복통이 있어 약을 먹어 창상으로 돌아

왔으나 서이사장이 군청직원들의 불시감사 시간에 맞추어 병원에 데려가라고 해 아프지도 않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다. 그 사이 군청직원들이 관리소홀 책임을 물은 것이다.
Q 정위원장을 고발하게된 경위는 어떻게 된 것인가.
A 정선생이 해고 이후에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는등 계속적인 활동을 전개하자 군청측에서 몇달만이라도 발목을 붙잡으라고 재촉이 심했다. 그래서 그를 절도죄로 고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마땅한 이유가 없어 이아무개 보육사의 신원증명 유출사건 등으로 묶어 그를 고발했다.
Q 서류함을 뜯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A 정선생을 고발한 이후 급히 서류함을 불일이 있어 서류함을 열다가 열쇠가 부러져 서류함을 파손했다. 이를 본 서정희 이사장이 정선생 절도사건의 증거로 삼자고해 사진을 찍고 증거물로 제출했다.
Q 법인 매매문제는 어떻게 된 것인가.
A 그동안 서정희씨와 양명군처에 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준비중이었다. 그러다가 혜인원이 매물로 나와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혜인원을 인수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6억에 나왔으나 가격을 절충해 5억에 인수하게 되었다. 조건은 부채 1억5천을 안고 2억5천은 수표로 5천은 현금, 나머지 5천은 11월22일자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
Q 이번 사건으로 개인 신변

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A = 죄가 없는 사람을 고발해 구속시켰으니 무고죄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 정선생을 구속시킨 이후 하루도 마음 편할날이 없었다. 물론 지금도 정선생이 감옥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한편 김순희씨의 이같은 증언에 대하여 이사장인 서정희씨는 정광용씨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인 운영권과 관련하여 최창수씨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해 김씨의 말을 부인했다. 또한 서정희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기자와의 면담을 거부하고 있어 나머지 사안에 대한 사실확인을 사실상 거부하였다.



준비중이었다. 그러다가 혜인원이 매물로 나와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혜인원을 인수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6억에 나왔으나 가격을 절충해 5억에 인수하게 되었다. 조건은 부채 1억5천을 안고 2억5천은 수표로 5천은 현금, 나머지 5천은 11월22일자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
Q 이번 사건으로 개인 신변

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A = 죄가 없는 사람을 고발해 구속시켰으니 무고죄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 정선생을 구속시킨 이후 하루도 마음 편할날이 없었다. 물론 지금도 정선생이 감옥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한편 김순희씨의 이같은 증언에 대하여 이사장인 서정희씨는 정광용씨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인 운영권과 관련하여 최창수씨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해 김씨의 말을 부인했다. 또한 서정희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기자와의 면담을 거부하고 있어 나머지 사안에 대한 사실확인을 사실상 거부하였다.

군청의 동산원 관리소홀 쟁점 부각

장어근 부지

75. 4. 14.

참여연대 '관련비리 조만간 고발조치 예정' 밝혀

동산원(전 해인원)의 전 원장인 김순희씨가 양심선언을 통해 해인원의 불법적인 매매 과정을 폭로한 이후 관할 감독관청인 경기도 광주군청의 관리소홀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광주군청 사회과 시설담당 석경자 주임은 해인원의 불법 매매 주장에 대해 "아는바가 없다"고 일축하고 "현재 서정희 이사장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관계로 군청측으로서는 법인매매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인매매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법인을 고발조치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새로 부임한 최진석 사회과 과장은 "법

인 매매는 군청이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며 "법인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청 사회과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서정희 이사장이 해인원에 부임하면서 선임한 임원의 군청의 승인에 대해 석 주임은 "구 임원진의 잔여 임기기간 동안에 대해서만 새로운 임원선임을 승인해 준 것"이라고 밝히고 "불법매매에 의해 임원이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사회복지법상 매매에 의한 임원승인 취소규정이 없어 새로 구성된 임원에 대한 취소조치는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해인원 노조설립과정에서 석 주임이 노조원들에게 "노조를 하려면 해인원을 떠나

라"고 말했다는 김순희 전 원장의 증언에 대해 "해인원 노조에는 관여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노조에 대해서는 묻지말라"며 해인원노조와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석 주임은 지난해 정광용 노조위원장에 의해 제3자 개입혐의로 고발되었으나 12월 16일 무혐의로 기각된 사실을 강조하며 노조와의 관련성을 모두 부인했다.

지난해 11월 해인원의 우물 공사, 옷장교체 등 시설내부 공사를 할 당시 공사대금 6백 50만원을 시설운영자금에서 우선 지급했다는 김순희 전 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군청 관계자는 "우물공사는 법인전입금에서 지불해야 하는 것으

로 국고보조인 시설운영자금에서 지불할 경우 위법사항"이라고 지적하고 "군청은 소극적인 의미의 지도·감독만 할 뿐, 적극적인 개입을 할 경우 행정기관이 시설을 좌지우지 한다는 비난을 초래하게 된다"며 해인원과 관련된 비위사실에 대한 군청측의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김순희 전 원장이 참여연대 내부비리고발자센터에 해인원 비위사실을 고발해 온 것과 관련하여 참여연대측은 "해인원을 법인불법매매, 후원금 횡령, 정 위원장 구속 조작, 국고보조금 전용 건등으로 조만간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산원 사태수습 활성화 양상 보여

정상화 대책위 구성, 당국에 해결 촉구 공문

장애인복지
98. 4. 28

성의 안보일 경우 관련자 형사고발 적극 검토

동산원(전 해인원) 사태가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인원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구성돼 사태수습을 위한 움직임에 활기를 띠고 있다.

대책위는 해인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이하 전문노련), 전국구속수배해고노동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참여연대의 내부고발자지원센터(참여연대) 등이 참여해 지난 17일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1차 모임을 갖고 동산원 문제해결을 위한 앞으로의 일정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해인원의 관리감독 관청인 경기도 광주군청과 경기도청에 해인원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과 항의 방문을하기로 합의하였고, 정광용 노조위원장 재판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는 한편 노조에 가입한 보육사의 복지문제, 동산원의 서정희 이사장과 관련자들아 형사고



'해인원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표들이 지난 24일 경기도 광주군청 부군수와 해인원 대책위원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김경환 간사, 전문노련 김태일 부위원장, 최진석 사회과장, 조성범 부군수.

발조치등이 거론되었다. 대책위는 일차적으로 광주군청 및 경기도청 사회과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과 앞으로 '해인원 비리에 대한 특별감사와 해인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24일 경기도 광주군청 부군수와 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광주군청 부군수와 대책위 간의 면담에서 대책위는 △공산원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감사 실시후 서 이사장의 비위사실이 있을 경우 고발조치 △관련공무원 파면조치 △관선이사 파견 등을 요구했으나, 부군수는 제반 행정적인 내용을 검토한 후에 처리하겠다고 답변하고 즉각적인 처리방향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측은 해인원에 대한 1차적인 관리·감독기관으로써 4월말까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으나 군정측은 "검토후 처리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참여연대 김경환 간사는 "주무감독 관청이 해인원 정상화 노력에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해인원 관계자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을 형사고발 조치하는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 한편 해인원 노동조합원인 해고보육사의 복지처리는 해인원 노동조합의 상급기관인 전문노련에서 맡아하기로 했으며, 현재 해고무효확인소송 1차 심리에서 승소를 한 상태이며 2차 심리가 진행중에 있다.

전남 장애인체전 열려
9개종목 3천여명 참가

[광주=서미애 기자] 지난 20일 나주종합실내체육관에서 장애인인의 날 기념식과 제3회 전남장애인체육대회가 전남장애인재활협회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남지부의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체육대회에는 육상, 수영, 배구 등 9개 종목에 24개 시·군의 3천5백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서로의 기량을 겨뤘다.

한편, 20일 광주민속박물관에서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과 기념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지기도 했다.

동산원 관련자 사법처리키로

해인원 대책위 8일중 현이사장 및 관련공무원 고발

‘해인원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달 29일 2차 모임을 갖고 동산원(전 해인원)의 서정희 이사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사법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참여연대 김경환 간사는 “경기도 광주군청과 경기도 청, 보건복지부 등에 해인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문을 지난 달 18일에 보냈으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해인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비위관련자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오는 8일 경기도 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서정희 이사장을 법인불법매매와

시설운영자금 전용, 후원금 횡령 등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광주군청 담당 공무원들

도 해인원 불법행위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동산원 현 이사장 검찰에 고발

배임증재 혐의로, 광주군 공무원도 함께

해인원(현 동산원)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동산원의 서정희 이사장을 ‘해인원 불법매수등의 부정비리’와 관련해 지난 15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시켜 동산원 사태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대책위는 동산원사태와 관련해 1차 관리·감독기 관련 경기도 광주군청의 군수, 사회과장과 계장 등을 직무유기를 이유로 서이사장과 함께 고발했다.

대책위는 서울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한다는 명목하에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피고발인 서정희와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발인 광주군청 책임자들은 마땅히 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고발이유를 밝히고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 서정희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취임할 것을 청탁하면서 금원을 제공한 것은 배임증재 행위에 해당하고, 관계공무원들은 해인원 불법매수 과정에서 최소한의 목인이나 직무태만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은 대책위에 참여한 해인원노동조합 이진숙 장의부장, 참여연대 김경환 간사, 홀트아동복지회 김경주 노조위원장, 전

해투 안경호 개혁국장 등 4인의 명의로 접수되었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 4월 20일 광주군청에 제출한 ‘해인원 비리, 특별감사와 해인원 정상화 촉구서’에 대한 광주군청의 회신내용을 지난 18일 공개했다.

광주군청은 회신공문에서 “.....본 군에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조치토록 하는등 조속한 시일내에 시설운영의 정상화 추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임은 물론 국가가 지향하는 장애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다하도록 지도감독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내부고발자(WhistleBlower)를 통해 본 「사회복지법인」 해인원의 비극

김경환(내부고발자지원센터 간사)

참여연대 내부고발자지원센터가 정신지체수용시설(이하 시설)인 해인원을 알게 된 것은 94년 11월 하순쯤이다. 그 당시 인권하루소식 모 기자가 "해인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정광용 노조 위원장이 옛날에 이곳 내부비리를 장애인 관련 월간지에 제보했는데 최근 절도죄로 구속이 되었다"는 얘기와 함께 장애인 전문잡지 「함께걸음」 94년 5월호를 보여 주었다. 나는 우선 '절도죄'란 말에 관심을 가졌다. 양심적인 내부고발자가 박해 당하는 여러 가지 중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구나 하면서

'부식비 착복에 아동 폭력까지'

87년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해인원(현 동산원)은 경기도 광주군 탄벌리에 있으며, 100명의 정신지체장애 아동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이다. 국고 전액 보조를 받고 있는 해인원은 최창수 전 이사장(안과 의사) 설립 당시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고 상상을 뛰어 넘는 각종 비리는 내부의 직원인 보육사들에 의해서 93년 7월부터 조금씩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상습적인 후원금 착복과 감독기관인 광주 군청에서 나오는 부식비를 착복하고 원생에게는 겨울에 담근 김치를 이듬해 여름에 물에 씻어 주어 영양실조로 사망하는가 하면, 일부 보육사들의 상습적인 아동 폭력. 심지어는 쇠고랑에 채워 학

대를 가하는 등등. 그래서 10여

명의 보육사중 남다른 봉사

와 희생정신을 가진 젊

은 몇몇 보육사와 일부

직원들은 이러한 사실

에 대해서 광주 군청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 진

정을 하기도 하고 언론사

에 제보하기도 하였다. 결국

93년 7월경 모 방송사에 보도가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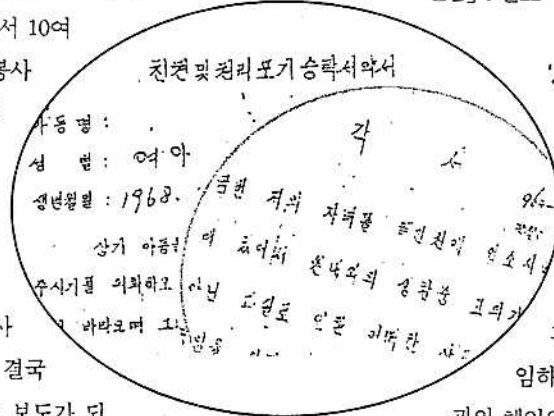
어 최악의 부조리들은 조금씩 나아지고 판선 이사

가 11월경 파견되기에 이르렀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주운 친권포기각서와 몇몇 통장'

그러나 장작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94년 3월경 해인원은 서류 창고를 정리하게 되고 많은 개

인 서류들을 쓰레기 소각장에 갖다 버렸다. 당시에 정광용 보육사(현재 구속중)는 우연히 소각장에서 몇몇 서류들을 습득하였다. 이것이 후에 절도죄 사건의 결정적 조작 부분이 된다. 친권포기각서와 아동 명의 후원금 통장, 그 외 여러가지 잡다한 개인적인 서류들이었다. 아동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라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모의 '친권포기각서'였다. 비록 법적인 효력은 없더라도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유는 간단했다. 정신지체아동에 대한 재가(在家) 재활 여건의 미비와 사회적인 시선에 대한 부모의 굴복도 문제지만, 관련 법 그것이 주범이고 부도덕한 이사장이 공범이었다. 법에 의하면 전국에 130여개에 달하는 이러한 시설은 무연고 아동 70%, 생활보호대상 연고 아동 30% 비율로 수용하게 되어 있다. 결국 집에서 보호하기 힘든(?) 아동의 부모는 이사장이 요구하는 데로 친권포기각서를 쓰게 되고 평생 양육비 조로 500만~1500만의 기부금을 낸다. 광주 군청 서류에는 70% 고아(현재는 연고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로 보고되어 있지만, 실제로 해인원에는 80%의 연고 아동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시설에 공통적인 문제라고 한다. 정광용 보육사는 소문으로만 들던 이런 일들을 직접 접하면서 또 한번 호루라기를 불게 된다. 그것이 「함께 걸음」 5월호이다.



'시설 내부비리 근절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정광용 보육사를

비롯한 3명의 보육

사들은 94년 9월 1일

서정희(여, 60세, 치

과의사) 현 이사장이 취

임하면서 최창수 전 이사장

과의 해인원 불법 매매 의혹, 전직

원 사적 압력 등 또다른 문제로 위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보육사들은 해인원의 구조적인 비리 근

절, 재활 여건 개선, 노동 악조건 개선 등 시설의 근

본적인 개혁을 위해서 필수적인 노동조합을 전국

시설 최초로 설립을 시도하였다. 그것이 김순희 원

장(51세, 목사)이 부임한지 보름쯤 되는 10월 24일

이었다. 시설의 노조는 각종 난마처럼 얽혀 있는 비리 근절에 획기적인 방안인 반면, 사회복지법인을 개인 사유재산쯤으로 생각하는 이사장들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원과 관의 합작품 절도죄’

노조에 대한 해인원과 광주군청의 기상천외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노조 설립

신고에 대한 군청의 터무니 없는 계속적인 반려와 제3자 개입, 정광용 노조 위원장 해고, 다른 3명의 조합원에 대한 노조 탈퇴와 해고 위협을 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정광용 위원장, 박 아무개 사무장, 홍아무개 회계감사, 이진숙 쟁의부장은 상급 노동 단체인 전문노련과 전해투(전국해고자원상복직투쟁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힘차게 싸워 조합 설립 인가증을 받았다. 11월 초순 겨울 복서풍이 막 불어닥칠 무렵이었다.

노조 설립 기쁨도 잠시, 정광용 위원장은 11월 16일 어이없게도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다. 정위원장 발을 묶기 위하여 해인원 측과 광주 군청이 만든 교묘한 합작품이었다. 3월 당시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견한 친권포기각서, 아동 명의 통장과 직원 관련 서류를 사무실 서류함에서 절취했다는 것이었다. 서정희 이사장의 지시에 따른 김순희 원장과 일부 보육사의 허위 진술, 편파적인 수사에 따라 정위원장은 12월 9일 구속되어 새해 전에 절도죄로 기소되었다. 두명의 조합원도 연말 결산하듯이 30일자로 해고되었다.

‘새해 벽두는 초조했지만’

새해는 접어들었지만 답답할 뿐이었다. 이렇게 할 변화없이 시간만 끌어가는 재판. 의기소침해진 조합원들. 지원 단체들의 떨어지는 동력 등 막막하게 2월을 보냈다. 이진숙 쟁의부장만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등 마지막 힘을 다하여 싸우고 있었다. 그러나 기우내 일어붙은 얼음이 봄바람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3월 11일 3차 공판이었다. 증인으로 나서길 거부하던 엄홍식 전 총무(이년 10월 해

직)가 일어붙은 말문을 열기 시작하였다. 작년 3월 당시, 서류가 도난 당한 것도 없고 정위원장은 문제의 서류들을 쓰레기 소각장에서 주웠다며 자신에게 보여주었다는 증언이

었다. 이진숙 쟁의부장의 지방노동위 승소 판정도 났다. 상황은 점점 유리하게 돌아갈 것 같았다.

‘의외의 내부고발자 김순희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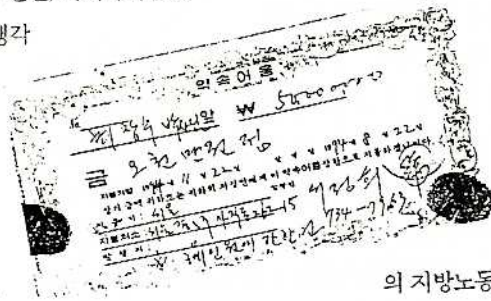
3월 17일 전화가 왔다. 약간 흥분한 듯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진숙 보육사였다. 자신들을 괴롭혔던 김순희 원장이 그간의 ‘모든 일은 허위’라며 양심선언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내부고발자지원센터도 흥분되었다. 우선 이 사실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원장을 만나자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내부고발자의 전화가 왔을 때의 몇가지 원칙을 생각하면서 흥분된 마음을 달래고 곧바로 센터 임원들에게 보고하였다.

처음 만난 김순희 원장은 초췌하고 불안해 보였다. 무엇보다도 동기가 궁금했지만 불안해하는 원장을 안심시키고 센터 임원들과 일단 만나자고 설득을 하였다. 과거 부정에 연루됐던 사람이 참회하는 마음으로 호루라기를 부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더우기 정위원장의 재판에 결정적인 증언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안심시켜 보자는 의도도 있었다. 3월 21일 원장과 센터 임원들과 처음으로 만났다. 허위 사실로 정위원장을 고소했다는 것과 서정희 이사장의 전황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시설 내부비리와 이사장으로부터 직위 해제 당했다는 얘기도 했다.

다음은 원장이 호루라기를 분 해인원 비리를 요약한 것이다.

1) 최창수 전 이사장과 서정희 현 이사장은 해인원을 3억 5천만원에 불법 매매하였다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은 실정법상 매매 금지되어 있으나 사실상 이러한 사회복지법인의 매매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이사장이 해인원을 사유



재산처럼 생각하게 된 근본 이유일 것이다.

2) 94년 12월 말경 여의도 모 증권 회사로 부터 후원받은 500만원을 횡령하는 등 상습적으로 후원금을 횡령하고 유용하였다.

시설은 후원금을 받으면 원장 명의의 후원금 관리 통장에 입금하고 영수증을 처리해야 하는데도 후원금은 입금되지 않고 이사장 개인이 유용하였다. 심지어는 이사장 머느리가 낸 후원금 1백만원 까지 도 착복하였다.

3) 보건복지부의 해인원 시설 보수 공사 지원비 2천4백만원을 지원 명목대로 쓰지 않고 임의 전용하였다.

4) 국고에서 지원되는 시설운영자금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해인원은 우물 공사, 옷장 교체, 봉고차 구입 등 시설내부 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시설 운영자금으로 6백 5십만원을 우선 지불하였다. 그러나 이 공사비는 법인 돈으로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에 김순희 원장이 서정희 이사장에게 요구하였고, 이사장은 나중에 주겠다고 하였으나 수십 차례의 독촉에도 결국 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는 관할 감독 기관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기 때문에 시설에 일반적으로 있는 문제이며, 결국 '시설운영자금의 이사장 개인 금고화'가 되는 것이다.

5) 기사, 서무 직원을 보육사로 광주군청에 허위 보고하여 그들의 월급을 주었다고 한다.

규정상 보육사가 10명이 되어야 하는데 8명밖에 없기 때문에 법인에서 월급을 주어야 할 직원을 보육사로 둔갑시켜 군청에 보고하여 결과적으로 국고를 축냈다는 것이다.

6) 이진숙 쟁의 부장의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에 대한 수원지방노동위 복직 명령을 불이행함은 물론 해인원측의 중앙노동위 재심 청구에 대해 지방노동위 조사 담당이 재심청구서를 대신 써 주는 등 관련 공무원들이 적극 개입되었다.

7) 정광용 노조위원장이 석경자 군청 사회계 주임을 제3자 개입 혐의로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하였으나 관련 공무원과 짜고 이를 기각하였다.

8) 정위원장 구속을 위해 해인원측은 담당 형사에게 직극적으로 로비를 하였다.

장애 인원은 사회가 함께 보듬어야

그 동안 의혹으로만 알려졌던 비리들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겨울 내내 차가운 감옥에서 억울하게 옥살이한 정광용 노조 위원장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기도 했다. 센터는 얼마전 이와 같은 사실을 사회에 알리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할 것을 관련 당국에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또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어떠한 박해도 반대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하루 빨리 정위원장이 석방되어 해인원의 정상화와 조합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장애 아동의 인권이 회복될 것이다.

시설 직원에게 얻어터지고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골방에서 겨저 흐느껴 울기만 할 정신지체 아동을 보면서 장애인 복지문제 뿐만아니라 우선 풀어야 할 숙제는 이들에 대한 사회의 편향된 시선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어느 교수의 말을 떠올리면서.....

"아마 우리나라 총체적 모순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시설일 겁니다." 